

서포인의 ‘좌측담장’



솔직히 짚짚해

어릴 때부터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을 좋아했었다. 텔레비전으로 축구나 야구를 보며 열을 올리고 있으면 엄마는 말씀하셨다. 그거 이기면 땀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느냐? 물론 아무것도 나오는 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 보는 것보다 더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최근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그랬던 것 같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던 이란과의 홈경기기는 심지어 직접 경기장에서 관전했는데, 그날 종일 회사에 있었던 여덟 시간보다 더한 답답함을 90분 내내 느껴야 했다. 답답하다고 내가 뭘 수도 없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

광주에서 살았으니 자연스레 축구보다는 야구에 가까워졌지만 광주에 일찍부터 프로 축구 팀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팀의 팬이 되었을 것이다.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종목이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다. 야구보다 투박하지만 다이나믹하고 빠르며, 야구보다 스코어가 덜 나지만, 이변이 잦다. 최근 K리그에서 특유의 끈질긴 축구로 준수한 성적을 올렸던 광주FC가 올 시즌은 강등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아직 남은 시즌은 길다. 아무쪼록 많은 팬이 경기장을 찾아 그들의 생존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길.

광주FC와 달리 이 지역의 야구팀 기아

타이거즈는 올해 성적이 매우 뼈아파나. 시즌 초부터 달려 나가더니 시즌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홈 경기장 만원은 이미 신기록을 세웠고, 원정 또한 기아 타이거즈 경기라면 흥행이 보장된다. 역시 야구를 잘하고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짚짚하다. 이 분분한 불안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위라고 마냥 기쁘지가 않다. 몇 점 차이가 나건 상대방에게 역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불펜 때문인가? 과이한 운영과 작전으로 게임이 어렵게 끌고 가곤 하는 코칭 스태프 때문인가? 아님 그저 기분 탓인가?

다시 축구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 지난 몇 년간 K리그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축구 실력, 인프라, 중계, 관중.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다. 스포츠 도박과 연계된 승부 조작이 리그의 몇몇 팀에서 적발이 되었고, 명문 팀의 스트라이커이자 국가대표를 지냈던 선수마저 연루됨이 드러났다. 의문의 자살 사건으로 앞날이 길었던 젊은 선수의 삶이 끝나기도 했다. 하부 리그 조직, 각 팀의 법인화, 로컬룰의 수정 등으로 비상을 준비하던 K리그에는 크나큰 악재였다. K리그의 위축은 결과적으로 국가대표 팀의 부진과도 연계된다. 삼양동에서 보았던, 눈이 부패되려 하

던 그 경기력도 K리그의 위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야구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 스포츠 도박에 빠지고 조직폭력배와 연결되어, 한순간에 야구 인생을 망친 선수를 우리는 꽤나 알고 있다. 상대적으로 드라디던 프로야구는 어디로 갔는가. 많은 사람들은 팬들의 환호와 어린이의 사인 공세에 성실히 응하는 팬 서비스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사교나 치지 않기를 바랄 뿐. 팬들이 엄마는 아닌데, 이상하게도 부모의 마음이 되어 노심조사, 미치고 환장할 노릇.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 8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KBO 심판에게 돈을 건넸음을 시인했다. 보기에 따라 심판의 협박에 못 이긴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구단이 심판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임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구단은 자신신고 기간도 지나쳐 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한 시즌이 마무리되려고 한다. 기아 타

이거즈는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이래로라면 한국시리즈에 직행해 대권을 노려볼 작하다. 이 모든 게 자연스럽고 자랑스럽나? 끝내 이기면 기분은 좋겠지만 감동은 이미 토막 나고 으깨졌다. 알 수 없던 짚짚함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거의 모든 스포츠는 승부를 가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뀐다. 공정한 롤 안에서 타고난 재능과 끈질긴 노력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민기에 우리는 그중 공놀이에 환호하고 감동하며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일 테다. 그날, 목 놓아 응원을 부르르고 선수의 이름을 외치고 박수를 쳤던 그날 중에 어느 날, 심판의 장난으로 스트라이크 존이 바뀌었을 수 있다. 약물의 도움을 받은 야구가 홈런을 때렸을 수 있다. 사실 도박에 배팅 건 투수가 일부러 불을 던졌을 수 있다. 이런 거지 같은 상상을 거듭하자니, 야구에 정이 똑똑 떨어지지만, 아직은 어쩔지 부모의 마음이 되어 이제 안 그러길 애써 바라는 것이다. 바보같이. 엄마처럼.

그러나 우리는 진짜 부모가 아니고, 사실 용서가 잘 안 된다. 기억은 잔뜩되어 있다가 언제고 나타날 것이다. 이 짚짚함을 솔직히 말하지 않고서는, 야구를 제대로 볼 수 없을 것만 같다. (시인)

社說

나주 혁신도시 응급 의료 시설 서둘러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착공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허허벌판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다. 가히 상천벽해라 하겠다. 본사를 이전한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16개 기관 중 15개 주요 공공기관의 입주도 마무리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나주시 인구 증가다. 이전까지 인구가 줄어들던 나주시는 지난 2014년 인구 8만9462명에서 올해 10만8936명으로 1만9474명이 증가했다. 혁신도시가 조성된 빛가람동 인구는 2014년 5064명에서 지난 7월 말 2만6981명으로 늘었다. 연말에는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민센터와 경찰서 등 주민 편의 공공시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다. 혁신도시로 분사 이전을 통해 직원들의 정착을 유도했지만 혁신도시 15개 기관 직원 6329명 중 가족 동반 이주는 2238명에 그치고 있다. 전체의 42.5%인

2690명이 '나 홀로 이주'인 것이다. 단신 이주 비율은 10개 혁신도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나머지 1372명은 미혼이나 독신이다.

여기에는 주택이나 자녀의 학교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이곳에 위급한 환자를 치료할 의료 시설이 없다는 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난 8월 31일 현재 혁신도시 내 병·의원인 소아과·내과 등 모두 17개가 있지만 종합병원 등 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시설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등으로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시설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조협의회가 응급환자 발생 시 비상 운송 시스템 마련과 혁신도시 내 대학병원 분원 또는 정기출장 집진 시행 방안을 요구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력형 비리 잡는 공수처 국민 모두의 요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위한 정부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미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내놓은 공수처 신설 권고안은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한다. 수사·기소·공소 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부처 총리, 국회의원, 판검사,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군 장성 및 2급 이상 공무원에 이르는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됐다. 수사 대상 범지도 뇌물수수과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 공갈, 직권 남용, 선거 관련, 국정원의 정치 관여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로 폭넓게 정해졌다.

공수처 신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검찰의 반대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통해 검찰 출신인 김기춘·우병우의 정횡이 드러나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적 요구가 분출했다.

여기에는 권력만 바라보는 일부 정치 검사와 부패 검사의 행태도 큰 몫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BBK사건, 국정원 댓글 부대, 민간인 사찰 등 대형 사건에 상당 부분 정치 검찰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도 높았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부처 총리, 국회의원, 판검사,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군 장성 및 2급 이상 공무원에 이르는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됐다. 수사 대상 범지도 뇌물수수과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 공갈, 직권 남용, 선거 관련, 국정원의 정치 관여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로 폭넓게 정해졌다.

공수처 신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검찰의 반대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통해 검찰 출신인 김기춘·우병우의 정횡이 드러나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적 요구가 분출했다.

삶과 교육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평등과 수월성을 넘어 다양성으로

군을 발굴하여 사회의 역량을 집중 투자하고, 그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를 분배함으로써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사회의 역량을 특정인에게 투자하는 것이 전체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이익이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우수한 사람을 가리기 위한 경쟁과 우수한 사람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영재 교육, 그리고 각종 특목고 운영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정책들이다.

반면, 평등의 실현은 누구나 사람이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개발하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목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을지라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껏 선택과 집중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이다. 즉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열악한 교육 환경을 받아야만 결과적으로 평등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공평하고도 각종 교육복지 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정책들이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한동안은 수월성 교육을 추구했고 결과적으로 '실력 광주'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 소위 학습의 결과는 시간

의 함수라는 주장에 따라 0교시부터 야간 자율 학습까지 학습 시간을 연장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우수 학생도 다수 배출했지만 학습에 흥미를 잃거나 학구적 무력감에 빠진 학생들도 그리고 공부로 성공하려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역외로 들러리를 서야하는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 상대방과 과다한 경쟁의 부작용이 서열화는 물론 학생 개인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로까지 비약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뒤를 이어 평등 실현 정책이 추구되었고 그 결과 수월성 교육이 안고 있었던 일부 부작용이 해소된 것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공부로 성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불만이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학습시간이 거의 획일화, 강제적으로 대폭 단축되었고 학교 후 이들을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이 제한적인데다가 선택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학교 교육이 실제로 진학이나 취업을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향 평준화는 부수적인 결과라는 주장과 함께, 구호만 난무한 채 실질적인 내용과 콘텐츠가 빈약하다 보니 학적을 유지한 채 학교 내에서 원하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무기력하게 남아 있는 학생들도 무리는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더 나아

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학생들까지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때는 수월성을 추구하던 성적 획일주의가, 뒤를 이어 모두가 같아져야 한다는 평등 획일주의가 우리 지역 교육을 주도한 셈이다. 그런데 시대적 트렌드를 보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창의성과 융합의 가치가 핵심이고 거기에 다양성과 유연성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획일성을 탈피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해답이다.

학생 행복지수가 높은 덴마크처럼, 공교육 제도 이외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형태의 자유학교(대안학교)를 새롭게 설립하거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학교의 다양성을 보장받기는 어렵더라도 이제는 공교육 제도 내에서도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과 지원을 해야 하고 학업 이외 분야에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에 부합하는 직업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획일성을 탈피하여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고

사랑반 아이들



이세천 전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80년대 초반, 중학교 1학년뿐 아니라 3학년 학생들도 한글을 잘 읽지 못하거나 쓰지 못하는 학생들이 한 반에 두세 명은 있었다. 당시에도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으로 1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사교육은커녕 부모님이야 선생님이로부터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꼭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만화책도 있고 축구공도 있으니 같이 놀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자고 모였습니다.” 웃는 분이 쟁쟁주신 만화책도 보이고 공이나 배트도 보이면서 호감을 얻어 보려했다. 그러나 만화나 축구공에 관심을 보인 학생도 더러 있었으나 서로 사랑은커녕 끝날 시간만 기다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아이들에게 읽는 것은 고역이다.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읽기를 시키면 머리가 아예지며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감 없으니 아는 단어도 헷갈려 읽어서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 다행히 만화책은 그림 때문에 전체 내용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어서 받침이 어려운 글자나 어려운 단어도 짐작할 수가 있다. 또 어려운 것은 모음(조)을 이룬 친구들 중 누군가 바르게 읽으면

같이 웃으며 읽는다. 서너 달 지나니 동화책을 찾는 아이들도 생기고 친구에게 읽어주는 것을 재미있다고 했다. ‘사랑의 반’은 읽기를 비롯하여 학습이나 놀이 등 모든 것을 서로 도우며 함께 즐기도록 마음 썼다. 선생님의 사소한 기쁨도 아이들과 같이 나누었다.

이들은 답답 선생님께 편지를 쓰기로 했다. 받아쓰기를 못하는 학생들이라 처음 쓰는 글은 읽기가 힘들다. 맞춤법도 틀리려니와 제대로 문장을 이룬 글은 찾기가 어렵다. 우선 글자 모양을 만들고 몇 번에 걸쳐 단어 읽기에서 문장으로, 문장 나열에서 문단으로 만들어 갔다.

아이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자신이 쓴 글을 답답 선생님께 보내게 된 것이다. 며칠 후 선생님들로부터 답장이 왔다. 아이들의 얼굴색이 바뀌며 목소리에 건강함 한이 실리고 발걸음도 가볍다. 부모님께 편지 쓰기는 부모님이 안 계신 학생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 쓰지 않는 대신 친구에게 편지 쓰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는 선생님은 글 내용을 보지 않고 모두들 별로 학생들끼리 서로 कुछ 주기로 했다. 친구의 답장을 받은 학생들은 밝은 얼굴로 “편지를 보내 주어서 고맙대네요.”

속스러워하면서도 가져오는 모습이 어떤 보물을 얻었을 때보다 기쁘고 환했다.

‘사랑반’이 토론 끝에 웅변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책도 못 읽던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주장하니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도 격려 끝에 결정되었다. 감격스러운 일이었으나 상처받은 아이는 없을까 걱정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과감하게 결정했다.

자신의 주장이 다른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그동안 말하지 못하던 얘들도 점점 말하기의 두려움을 떨쳐냈다. 주장을 과감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온몸을 움직이며 손뼉친다. 웅변을 잘하는 연사들의 흥분을 내는 아이도 있고 ‘내 마음을 알겠다!’ 하는 눈빛으로 강렬하게 파고드는 아이도 있다.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 읽는 데서도 발표를 한 친구들도 있다. 짧은 교사의 국어시간은 물론이고 잘 이해하는 선생님들이 협조하여 발표할 기회를 많이 주었는데 이 아이들은 학교의 스타가 되었다. 80년대 후반이라 일반 학생들도 발표를 잘하지 않던 시절에 이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발표하고 선생님들과 많은 아이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無等鼓

광주일보는 무등빌딩(광주시 동구 금남로) 14층에 있는데 전망이 참 좋다. 내 자리에서는 의자만 돌리면 멀리 무등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금남로에서 행사를 할 때면 구경하기에 이만한 명당자리가 없다. 전남 도청이 옮겨 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모습도 즐근 지켜볼 수 있었다.

몇 달 전부터는 대성학원 옆 영상복합문화관 옥상에 설치된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광주 폴리’ 세 작품 중 하나로 ‘뷰(View) 폴리 III’라는 대형 설치물이다. 멀리서 바라본 작품은 뭔가 아쉬웠

그리고 한국의 건축가 문훈이 참여한 ‘뷰(View) 폴리’는 한마디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 설치물 뒤로 넓은 공간을 감추고 있었고, 화려한 색으로 치장된 철제 구조물은 사진 찍기 좋은 명소가 될 게 분명해 보였다.

무엇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반기웠다. 광주 명물이 된 하늘공원 푸른 잔디밭이 바라다보이고 대부분의 건물이 ‘지하’로 들어가 ‘전체’를 보기 어려웠던 전

당도 한눈에 담진다. 광주에도 도심의 조망할 수 있는 근사한 공간이 생겼다. 커다

다. ‘CHANGE’라는 단어가 쓰인, 거대한 간판 하나 달랑 걸어둔 느낌이어서다. 색깔이 변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을 유인할 만한 무언가가 없어 보였다. 지난 18일 ‘뷰(View) 폴리’가 처음 공개했을 때 우려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다. 천의영 ‘광주 폴리 III’ 예술감독과 함께 돌아본 ‘뷰 폴리’는 천 감독의 말처럼 ‘반전’과 ‘의외성’에 ‘예기치 않은 발견의 즐거움’을 안긴 흥미로운 공간이었다.

독일 미디어아트 그룹 리얼리티즈 유나이티드의 안 에틀러와 팀 에틀러 피한 잔 들고 올라가 지는 석양을 바라봐도 좋겠고, 친구·가족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추억을 만들어도 좋겠다. 야간엔 경관이 더 아름답는데 더 어찌면 유명 클럽이나 맛집 앞에 긴 줄이 서듯, ‘뷰 폴리’를 찾기 위한 이들의 긴 행렬이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뷰 폴리’는 10월부터 개방된다.

모래밭, 잔디, 분수, 트램펄린, 거리 칠판, 노란 철제 계단으로 구성된 서석초등학교 앞 폴리 ‘I LOVE STREET’와 ‘룩 폴리’도 지적이니 이만한 도심 나들이도 없겠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